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60호
2024. 6. 7.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과 건설산업 이슈
- 해외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과 건설산업 이슈

- 지속가능성 공시 임박, 건설산업 기후 관련 단·중기 전략적 대응 필요 -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공개

-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음. 공시의 법제화 전으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하였음.
 - KSSB는 2023년 1월 우리나라의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설립됨. 그동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42개社)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총 21회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고, 지난 4월 초안을 발표하였음.
 - 공시 초안에는 공시 당사자인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기준 전문과 함께 요약서, 질의응답서(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함. 요약서에는 공시 사례를 포함한 설명이 포함됨.
 - KSSB는 금번 공시 초안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청취를 통하여 하반기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임.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핵심은 △ 기후 공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 △ 보고 대상의 범위, △ 논란이 많은 Scope 3의 공시 시기 및 의무화 여부 등임.
 - KSSB는 기후 공시의 우선 적용에 대해, 기후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가 더 용이하여 공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밝힘.
 - 보고 대상에 대해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시 시점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공시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야 함.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KSSB에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

-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목표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고려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공시기준서 제1호, 제2호, 그리고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로 구성되었음.

(공시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으로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제시

(공시기준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된 내용 제시

(공시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으로서 정책적 목적으로 추가로 공시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제시

- 제1호 일반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 본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부록으로 구성됨.

<표 1> 제1호 일반사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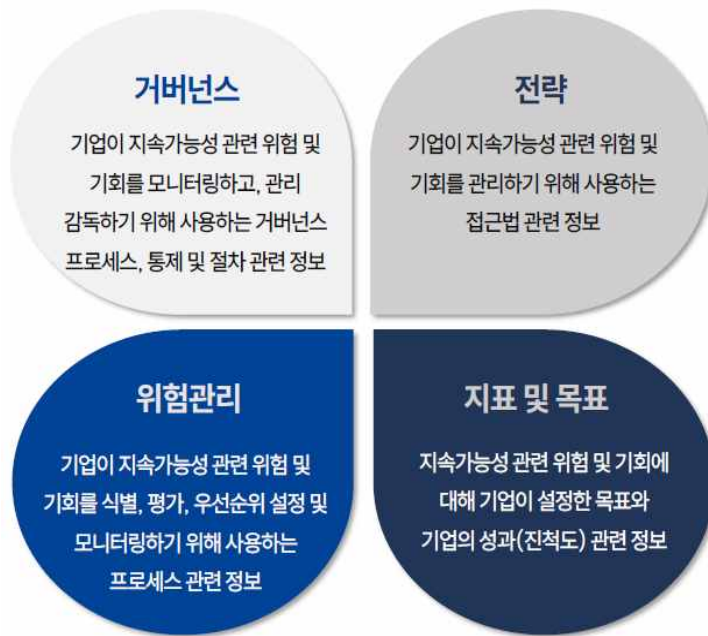
구성		내용
본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표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
부 록	A. 용어의 정의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의미 제시
	B. 적용 지침	기준 적용에 도움이 되는 부가 설명을 제시
	C. 지침의 원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정보 식별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지침의 원천 제시
	D.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보강적 질적 특성 설명
	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하는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 제시
	F.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시

자료 : KSSB.

- 제1호 일반사항의 본문은 목적, 적용 범위, 개념적 기반, 일반요구사항,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됨.
 - ‘적용 범위’에서 단, 중기 또는 장기에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 형태를 띌 것을 주문하고 있고, 기후 관련 정보만 공시할지 혹은 기후 외 다른 정보도 공시할지를 선택토록 함.
 - ‘개념적 기반’은 공시의 기본 개념으로서 공정한 표시, 중요성,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핵심요소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함.

- ① ‘공정한 표시’란,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목적적합한 정보 공시와 충실(완전, 중립,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함.
- ② ‘중요성’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명시
- ③ ‘중요한 정보의 식별’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중요한 정보로 고려해야 하며, 공개초안에서 요구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배제할 수 있다는 개념
- ④ ‘보고기업’이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으로 정의
- ⑤ ‘통합과 세분화’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말 것과 통합으로 인해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개념
- ⑥ ‘연계된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가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구
- ⑦ ‘핵심요소’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개념

<그림 1> 공시의 핵심요소



자료 : KSSB.

- 제1호 일반사항에서는 공시에서 6개의 일반 요구사항 즉, 비교정보, 준수문구, 기후 외 시안 공시, 판단, 측정 불확실성, 오류 등을 적용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함.
 - (비교정보) 당기에 공시되는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함께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서술형 공시에 대해서도 비교정보가 유용할 경우 공시를 해야 함.
 - (준수 문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

수하였음을 기술함. 단, 법률이나 규정에서 금지 혹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생략 가능함.

- (기후 외 사안 공시)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요소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함.
 -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중요한 전기오류는 비교값을 재작성하고, 오류의 성격에 대한 공시함.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는 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함.

<표 2>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

구성		내용
본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
부 록	A. 용어의 정의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 제시
	B. 적용 지침	기준 적용에 도움이 되는 부가 설명 제시
	C.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시

자료 : KSSB.

- 제2호의 본문의 공시 요구사항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은 핵심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함.
-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반영 방식, 적절한 인력 확보, 빈고빈도, 의사결정 시 고려방법 등을 공시하고, 기후 관련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및 보상정책 그리고 거버넌스의 프로세스와 통제,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 등을 공시해야 함.
 - (전략)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와 그 위험과 기회가 미치는 기간 범위,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재무성과·현금흐름·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기후 관련 변화·전개 상황·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의 위험과 기회에서 효익을 얻는 역량(회복력)에 대한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식별 여부와 식별방법 및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식별·평가·우선시와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해 공시하고, 기후 관련 위험관리가 전사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을 공시함.
 - (지표 및 목표)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즉, 손실가스 절대 총배출량,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및 투자액, 그리고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와 방법 및 GHG(온실가스)

1톤당 가격, 기후 관련 사항의 경영진 보상 책정 여부와 방법 및 당기 인식 비율을 공시토록 하였고, 기후 관련 목표와 목표의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공시함.

-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에서는 공시정보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선택적인 공시항목을 정하고 있음.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항목으로는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정보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 구분됨.

<표 2> 제101호의 공시항목

법규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 배출권 거래제 • 환경정보 공개제도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환경물질의 배출, 정부규제 준수, 녹색 기업 등과 관련된 정보 •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직원 등의 현황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 •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정보 •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정보 •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

■ 공개 초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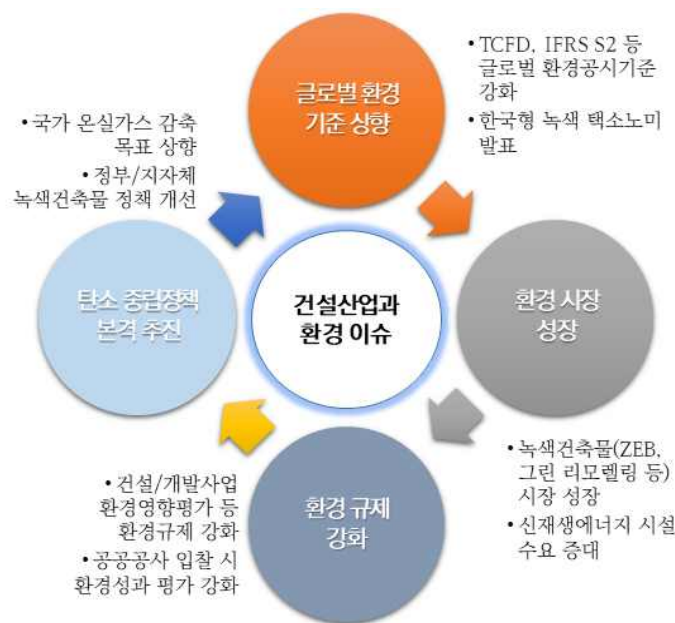
- 금번 공시기준 초안은 사실상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ESRS(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다소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환경정보의 공시 수준과 공시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기업에 큰 비용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cope 3가 빠졌다는 점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적용 시점도 향후 기업 등과의 논의의 여지로 남겨 두었다는 점 역시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짐.
- 다만, ‘제101호의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이러한 선택이 최근 ESG의 입법화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목적하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질 경우,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 건설산업 입장에선 지금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건설기업들이 일부 기업에 불과하고,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기업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금번 초안의 발표에 따른 공시의 압박은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 경영에서 환경 분야 대응은 그동안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 관련 구체적인 공시 초안 사항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공시 초안의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보면, 정량적인 환경 성과지표는 물론, 의사결정조직 등 거버넌스, 환경경영 전략 및 기후 관련 위험관리체계,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건설생산체계의 복잡성과 현장 및 개별 프로젝트의 환경관리 요소의 광범위성 등을 감안할 때, 공시에 대한 충분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건설생산과정과 주된 건설시설물인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가 임박하고, 탄소중립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건설산업의 기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기후 관련 공시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과제

- 건설기업의 기후 관련 대응은 조직, 전략,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기후 등 환경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정부는 건설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기후 관련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 발주자 및 건설기업은 건설산업의 기후 관련 핵심 이슈들에 대응한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전략,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건설산업의 환경 분야 주요 이슈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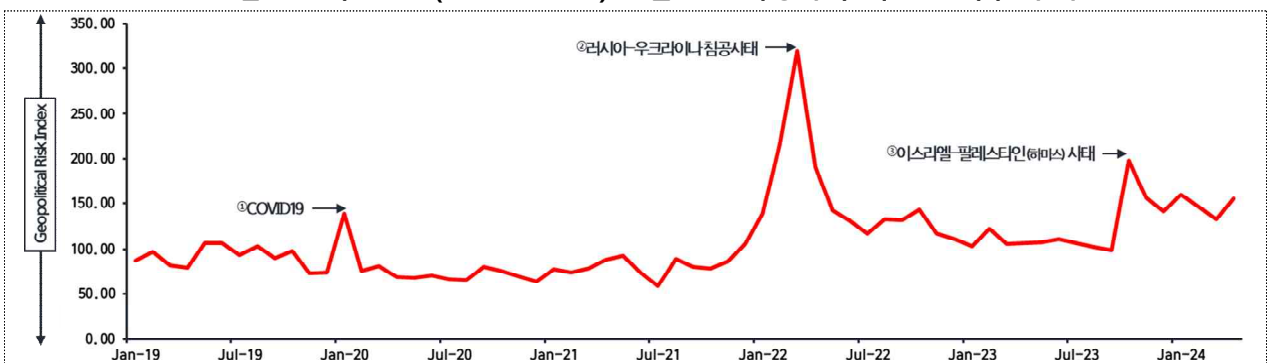
해외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현황

- 해외 건설시장 변수 요인의 상수화, 수익성 확보와 성장을 위한 수주전략 병행 추진 -

■ 긍정적인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속 하방 요인의 해외 건설시장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필요

-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는 ‘△물가 하락,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1%p 증가한 3.2%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 향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상방 요인] ①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 재정 부양 확대 기대, ②물가 안정에 따른 조기 금리 인하, ③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④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 증가 요인으로 제시함.
 - [하방 요인] ①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②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 수준, ③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 제시함.
- 특히, 주요 하방 요인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발주처의 재정 부족,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등 해외 건설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갈등 확산] 지난 5년간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변동을 보면, COVID-19(138)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위기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319)로 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196) 이후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지난 5년(2019~2024.4)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추이



- [고금리 지속 상황 속 높은 부채 수준] 지난 10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Debt) 비율 변화를 보면 선진국 그룹은 지난 2020년 1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후 2024년 111.2%로 11.2%p 감소하였으나,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경우 동기간 64.6%에서 69.4%로 5.0%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4. 16), “IMF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 3.2%, 한국 2.3% 성장 전망”

2)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ttps://www.policyuncertainty.com/gpr.html>”, <검색일자: 2024. 5. 31>

<표 1> 지난 10년(2015~24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진국	103.2%	105.6%	103.2%	102.8%	103.9%	122.4%	116.2%	111.2%	111.0%	111.2%
신흥국 및 개도국	43.7%	49.1%	51.2%	52.5%	55.0%	64.6%	63.9%	64.0%	68.0%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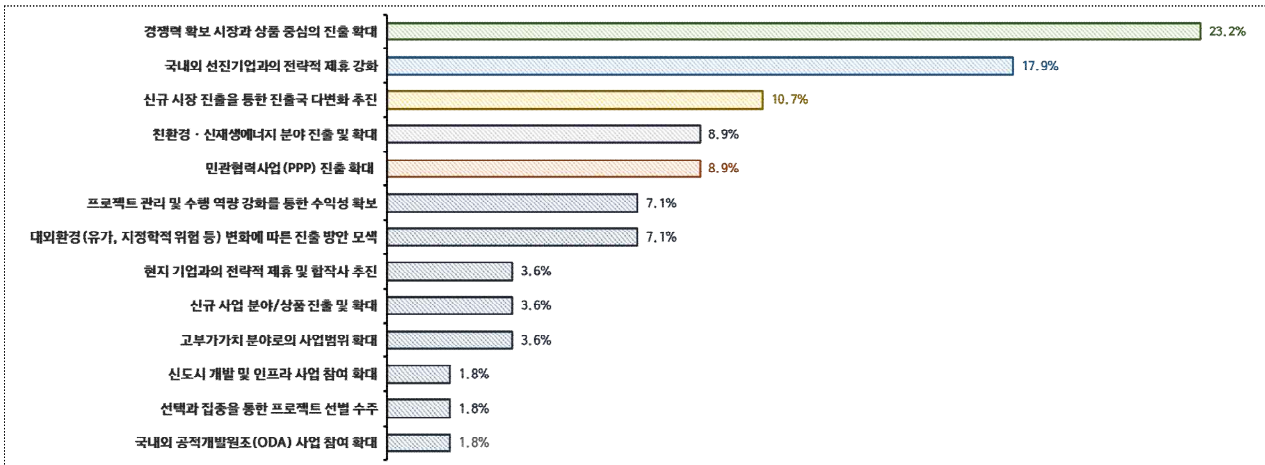
-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5.2%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4.8%, 2025년 4.5%’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⁴⁾됨. 또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Debt) 비율은 2015년 41.5%에서 2024년 88.6%로 47.1%p 증가함에 따라 앞서 살펴본 주요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과 비교 시 매우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⁵⁾함.

■ 수익성 중심의 수주와 신규 지역·공중 진출을 위한 수주 활동 전개 전망⁶⁾

● 글로벌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수주 경쟁 심화로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대형 건설기업은 경쟁력을 보유한 시장과 상품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해외 건설사업의 성장 기반 여건 마련을 위한 신규 시장·상품으로 진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 중임.

<그림 2> 2024년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전략에 관한 그룹화 결과



- [경쟁력 확보 시장과 상품 중심의 진출 확대] ①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공종과 국가에 영업력 집중, ②경쟁력 기 확보 국가·분야 영업력 극대화, ③수행 경험과 리소스를 보유한 중점시장에 집중, ④핵심시장 현지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 추진, ⑤중점 지역 영업 경쟁력 강화 등

- [국내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①전문 엔지니어링사와의 협력 강화로 수익성 극대화, ②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③선진사 및 현지 Top-Tier 社와 협업하여 리스크 완화 및 수행 경쟁력 확보, ④전문 엔지니어링 인력과 해외 전문 설계사와의 협력 강화 추진 등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24):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검색일자: 2024. 5. 31>
 4) Asian Development Bank, “Economic forecast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검색일자: 2024. 5. 31>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4. 4. 11), “[OERI-Shorts] 중국 양회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방향”
 6) 최근 3년(2021~2023)간 해외 건설 수주 상위 10대 기업의 분기보고서(2024년 Q1)와 영업보고서(2024년)에 제시된 해외 수주 전략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수주 전략 그룹 선정과 그룹별 비중을 산정함.

-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진출국 다변화 추진] ①러시아·CIS·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 개척 추진, ②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사무소 유치를 통한 중미 영업 기반 확대, ③거점시장 공고화 및 점진적 신시장 진출 도모, ④국가(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아이템 선정 및 중점 추진 등
-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①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개발 사업 참여, ②아시아 지역(베트남, 라오스 등) 내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Value-up 사업 추진, ③수소·신재생 사업 등 신수종 분야 진출, ④CCUS·수소 등 친환경 사업 확대 등
- [민관협력사업(PPP) 진출 확대] ①시장 안정성이 확보된 선진국의 PPP 프로젝트 중심 참여, ②선진국 PPP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사업 확보 추진, ③지속 가능한 민자사업 참여 확대와 개발 제안형 사업 추진, ④금융 조달 사업영역(PPP, IPP) 확대, ⑤교통인프라 PPP 사업 참여 확대 등

■ 해외 건설사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병행 필요

-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최근 4년(2020~2023년)간 연평균 300억 달러 규모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400억 달러 목표⁷⁾ 달성을 위해 주요 기업과 정부가 노력을 정주하는 상황임.
 - 국내 건설기업은 산업 순환 주기상 성숙기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과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경쟁기업 대비 경쟁우위 역량을 보유한 국가 및 공종 진출, △수행관리 역량 및 국내·외 기업 간 협업 강화’ 등 주요 수주 전략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전개 중임.
 - 이와 같은 수주 전략 전개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스크관리 능력과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발주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해외 건설시장에서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언급된 ‘△지정학적 갈등 심화, △발주처 재정 부족’ 뿐만 아니라 자국 부동산시장 침체로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건설기업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건설기업의 주요 수주 지역인 아시아와 중동에서 양국 기업 간 수주 경쟁이 심화⁸⁾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해외 건설 수주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브릭스 신규 회원국 가입, △일대일로 ‘건설계약’ 누적액 334억 달러 / 계약 실적 기준 2위)와 중국 정부 간 밀월관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4년(2020~23년)간 우리 해외 건설수주액 중 중동지역 상위 4개국의 중국 건설기업 진출 현황을 보면 ‘△사우디(24개), △UAE(23개), △이라크(17개), △카타르(5개)’ 순으로 카타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중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임.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7)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①수주 기대(입찰 참여 공사 중 수주 가능성 有): 175억 달러, ②수주 예정(제조사 발주, 수의계약 등): 115억 달러, ③사업다각화(원전, 신재생, 투자개발 등): 60억 달러, ④계약변경(증액): 50억 달러’로 전망됨, 해외건설협회(2024. 2. 16)

8) 우리 건설기업은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중국과 튀르키예 등 후발 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 개발 원조, △신흥국 기업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점차 악화하는 상황임.